

## 에스겔6장

우리 처소를 예비하러 가셨던 주님, 내가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으로 인도하리라 말씀하셨고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말씀하셨나이다 이제 아버지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시고 이제 오실 때가 다 되어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교회들은 잠을 자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작은 불꽃이 되어서 교회들을 깨울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말씀의 빛을 통하여 어둠을 비출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곳에서 증거하는 말씀들이 온 세상에 퍼져 나가서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의 심령을 비출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시고 빛을 받은 사람들이 빛을 비출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이 주님 오실 때 멸망하지 않고 생명을 받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에스겔서 오늘 3장 12절부터 보겠습니다.

그 때 그 영이 나를 들어 올리시는데 내가 내 뒤에서 나는 크고 요란한 음성을 들으니 말씀하시기를 “그의 처소에서 나오는 주의 영광을 찬송하라.”하더라

나는 또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부딪치는 소리와 생물들과 마주 향한 바퀴 소리와 크게 요란한 소리를 들으니라.

그러므로 그 영이 나를 들어 올려 멀리 데리고 가시는데 내가 괴롭고 내 영이 화가 났었으나 주의 손이 내 위에 강하게 임하시더라.

그때 내가 텔아빕에 있는 사로잡힌 자들에게로 가니 그들은 크발 강가에 거하는데 내가 그들이 앉아 있는 자리에 앉아 그들 가운데서 놀라서 철 일을 지내니라.

철 일의 끝에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말씀하시니라.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집에게 파수꾼으로 세웠나니 내 입에 있는 말을 듣고 내게서 나오는 경고를 그들에게 주라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구약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영을 들어 올리는 일을 자주 하십니다 그리고 그래서 장소를 옮겨

주십니다 이것은 초자연적인 현상 이죠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회오리바람을 타고 올라 갔는데 사람들은 그가 실종된 것으로 알고 그를 찾으러 다녔습니다. 그레 가지고 열왕기하 2장 16절 하반절에 보면 사람들이 뭐라는가 하면 혹시 주의 영이 그를 들어 올려 어떤 산이나 어떤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말하기를 너희는 보내지 말라 하더라 엘리사는 알았죠 그러나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에스겔은 또 이런 체험을 여기서만 한 것이 아닙니다 8장 3절에 가 보면 이런 체험을 했어요 그가 손의 형체를 내밀어 내 머리 터레를 잡고 그 영이 땅과 산 사이로 나를 들어 올리어 하나님의 환상들 안에서 예루살렘으로 나를 이끌어 북쪽을 바라보는 안 쪽의 대문에 이르니 그랬습니다. 에스겔은 바벨론에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영을 들어 올려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했습니다 그들이 어떤 죄들을 짓고 있는가? 이것을 보게 했죠 이것이 비단 구약 시대만 일어난게 아닙니다 신약 시대에도 일어났죠 빌립이 천사가 와서 너 가자 지역으로 가라 가자 지역으로 가자니까 그 사막 길을 혼자서 걸어서 갔는지 낙타를 타고 갔는지 모르지만 그 사막 길 그 뜨거운 길을 걸어 가니까 거기서 병거에 타고 있는 에치오피아 네시가 무엇을 읽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때 성령께서 병거 위로 올라 가라 그렇게 얘기 했을 때 거기서 대화를 하죠 거기서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습니다 이사야서 53장을 읽고 있었는데 그 무슨 말인지 알겠느냐? 그러니까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알겠느냐 빌립이 그 이사야서 53장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 그리고 부활 하셨다 그를 믿으면 영생을 받는다 이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레 가지고 에치오피아 네시가 그럼 내가 물에 내려가서 침례를 받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빌립이 뭐라는가 하면 당신이 전심으로 믿어야 된다 그게 사도행전 8장에 있죠 8장 37절인가 있죠 전심으로 믿어야 된다 이것을 개역성경에는 빼놓았어요 "없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진짜 전심으로 믿어야 된다는 말을 빼놨어요 그래서 머리로 믿어도 구원 받는 줄 알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사단은 없음이란 구절이 지옥이라는 거 금식이라는 거 구원에 관한 것들 속속 빼놓으니까 그것 빼 놓고 나면 성경이 성경이 아니죠 성경이 성경이 아닙니다 이게 이렇게 되니 전부다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 성경을 끝까지 붙잡고 있습니다 이렇게 알려졌는데도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킹제임스 성경을 깨달은 사람들이 자꾸 많이 생기죠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그들이 물에 내려가서 침례를 주고 물에서 이렇게 올라오는데 주님의 영이 빌립을 통째로 들어 올려 가지고 빌립을 데려 가시니 그 내시가 그를 다시 보지 못 하더라 그랬습니다 이게 사도행전 8장 39절40절에 나오죠

그 후 빌립이 아소토에 나타나 가이사라에 이를 때까지 지나가면서 모든 고을에 전파하니라. 아소토라면 거기 말이죠 내시를 전도한 지역에서 한 북쪽으로 수 십 마일 되는 데요 수 십 마일 되는 되는데 거기 탁 나타난 거예요 지금 에스겔서에서는 하나님께서 영을 들어 올립니다 영을 뺏습니다 그러나 여기서서는 몸과 영과 혼을 한꺼번에 들어 올리는 겁니다 제가 옛날에 들었는데 그게 나는 확인은 안 해 봤지만은 어떤 목사가 미국 목사가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선교를 해야 되는데 전도를 해야 되는데 공항에서 얘기를 하다가 비행기를 놓쳤답니다 비행기를 놓쳐가지고 어쩡하나 어쩡하나 기도 하고 있는데 한 참 기도하고 눈을 떠 보니까 거기에 와있더라요 이런 일이 특별한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요한이 체험 했잖아요 내가 즉시 영 안에 있게 되었는데 영 안에 딱 있었는데 그 영이 하늘로 올라갔죠 하늘에는 한 보좌가 놓여 있고 한 분이 그 보좌에 앉으셨는데 앉으신 분의 용모가 백옥과 홍보석 같으며 그 보좌를 두른 무지개는 에메랄드빛 같이 보이더라 이렇게 그 영이 들어 올려져 가지고 영 안에서 영 안에서 그의 영이 봤다는 얘기죠 영이 봤다는 얘깁니다 순식간에 사도 요한은 하나님 볼 때 셋째 하늘에 올라간 것입니다 순식간에 올라간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에 계신 주님을 보았습니다 이걸 뭐 그가 올라간 속도는 빛의 속도는 저리 가라죠 빠른 이동입니다 완전히 우주 밖으로 그냥 나간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렇게 옮기실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영적으로 옮기는 방법이 있고 영만 속 빼내 가지고 몸은 그대로 있고 영은 빼내 가지고 보여 주는 경우가 있고 영과 몸을 한꺼번에 옮기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도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에 어떤 사람이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 그래가지고 참 사람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언어로 들었다 그런데 이것을 사람들에게 말하도록 허락 되지

않은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는가 하면 자기가 한 것을 다른 사람이 한 것처럼 했어요 왜냐면 자기가 했다면 사람들이 그 간증 들으려고 몰려들 것 아닙니까 요즘 보면은 뭐 천국 봤다는 사람들 별 사람 다 있죠 그럼 사람들이 구름때 같이 모입니다 자기가 올라가는 거예요 사도바울은 어떤 사람이 그랬어요 자기가 영광을 받지 않기 위해서 사도 바울과 요즘의 사람들 보면 완전히 뭐 엄청난 차이가 나죠 뭐 봤다 하면 난리가 나는 겁니다 천국 갔다 하고 지옥 갔다 하고 사도 바울이 뭐랜는가 하면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알 수가 없다 자신이 영이 가는 건지 몸이 가는건지 몸 안에 있었는지 이상하게 모르겠다는 거예요 분명히 영이 빠져 나간 거죠 그래 가지고 그가 본 것을 얘기 했죠 이게 바로 에스겔 같은 거죠 영이 빠져 나가서 들어 올린 거죠 그런데 아까 빌립 같은 경우는 영과 몸을 한꺼번에 옮기신 겁니다 그냥 초자연적으로 옮기신 겁니다 두 번째로 앞으로 영혼 육을 한꺼번에 옮기실 일이 생깁니다 이게 바로 휴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기다리는 휴겁니다 그러니 구약시대 신약시대에 몸도 옮기고 영도 옮기고 이런 걸 다 이미 보여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주 있는 일은 아니고 특별한 일은 있죠 휴거라는 것이 특별한 날이거든요 특별한 날입니다 어느 미국 분이 하누카가 끝나는 요번 주일이 아주 굉장히 중요하다 중요하다 이런 메시지를 받아서 얘기하는 것을 들었는데 우리는 뭐 그런 메시지를 들으면 참 좋죠 우린 그걸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던 자들이 일어나고 살아있는 사람들이 그냥 변화되 가지고 그냥 통째로 하늘로 올라 간다 이걸 뭐 엘리야 정도가 아닙니다 엘리야는 영생체가 없었죠 그러나 우리는 영생체를 가지고 올라 갈 것이다 이게 얼마나 소망된 애깁니까 아마 이 일이 일어나면 그 때 하고는 달라요 난리가 날 겁니다 정말 난리가 날겁니다 그러나 세상에 갑자기 일이 일어날 때 브래킹 뉴스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말이죠 그 정도가 아닐 겁니다 우리는 믿음에 있기 때문에 그러나 믿음 없는 사람은 도저히 상상도 못 하는 일이죠 휴거라는 것은 몸의 부활입니다 몸의 구원이 영이 거듭나서 그 다음에 혼이 구원을 받고 몸도 구원 받는 거죠 이 몸을 벗어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죽는 게 아니죠 죽을 몸을 벗어 버리고 영생체를 입는 거죠 그래서 영과 혼과 몸이 다 구원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바울은 몸의 구속을 떠나 주와 합

한 것이 좋으나 내가 아직 몸 안에 있는 것이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라 아직 사명이 있으니까 우리가 있는 거죠 우리가 할 일이 있으니까 우리가 있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침례인 요한과 같은 사람은 사명이 끝났죠 그러니까 데리고 갔어요 이 세상에 오래 산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주님의 맡기신 일을 내가 다 감당했느냐 안 했느냐 각자에게 맡기신 일이 다 다릅니다 그러나 맡기신 일을 내가 순종할 수 있고 순종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의 일은 헛된 것이 없다 고린도전서 15장 마지막절 보면 그러므로 견고하라, 흔들리지 말라,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주의 일은 절대로 헛된 것이 없다고 사도바울이 부활 장에서 휴거를 증거한 다음에 부활 장에서 마지막으로 당부한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자 13절 보세요 13절 나는 또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부딪치는 소리와 생물들과 마주 향한 바퀴소리와 크게 요란한 소리를 들으니 날개로 이동하진 않지만 날개로 막 부딪힌단 말이죠 그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나도 막 부딪힐 때 엄청난 요란한 소리가 난다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14절 보니까 그러므로 그 영이 나를 들어올려 멀리 데리고 가시는데 내가 괴롭고 내 영이 화가 났었으나 주의 손이 내 위에 강하게 임하시더라. 생물들과 바퀴가 이제 이룩을 하는 거죠 땅에서 이룩을 하면서 에스겔을 같이 들어 올립니다 참 에스겔은 축복 받은 사람이죠 그러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영적인 축복을 받는 사람은 이 땅에서 고생을 많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축복만 원하고 고생을 안 하려는 사람은 세상 말로 하면 암체족입니다. 우리 주님도 영광 받기 전에 그렇게 고난을 받았는데 이 땅에서 고난 받지 않고 편안하게 살려는 사람은 그러면서 온갖 축복을 누리려는 사람은 그 사람은 뭔가 잘 못된 사람이죠 노-크로스(No cross), 노-크라운(No crown) 아닙니까 세상도 고생한 사람이 영광을 받더라구요. 여기 보니까 그런데 왜 에스겔이 화가 날까요 하나님의 보좌에 올라갔는데 어떻게 감히 화를 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분을 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2장에서 하나님이 그랬죠 너희는 반역을 잘 하는 민족이며 그가 먹은 두루마리 안에는 애가들과 애곡과 화가 쓰여져 있었다 그 안에 화가 있었다 그랬죠 에스겔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수궁하면서 그 동족들에 대한 분노와 동시에 안타까움과 슬픈 마음을 금할 수가 없었죠. 사도바울이 동족들이 예수를 안 믿

는 것을 볼 때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모세도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을 반역할 때 차라리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울 지라도 저들을 구원해 달라고 그랬죠 그러기 때문에 이 정말 하나님의 종들은 이렇게 그런 안타까움이 있고 안타까움이 있다가 화가 나기도 하고 왜 화가 나겠어요 요즘 같으면 사단에게 화가 나는 거죠 사탄아 물러가라 저 사탄에게 붙잡혀 있는 것을 볼 때 사탄에게 화가 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사탄을 받아 드리는 사람을 볼 때 안타깝고 화가 나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너무나 주의 손이 강하게 임하였기에 그는 어쩔 도리 없이 가야 했어요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손이 임한 사람은 어쩔 수가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옆에서 가족이 울부짖어도 할 수 없어요 주의 손에 붙잡혔는데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하여 반역한 민족들을 향하여 마지막 통촉을 하라는 겁니다 이 얼마나 에스겔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15절 보니까 15절 16절 보니까 그때 내가 텔아빕에 있는 사로잡힌 자들에게로 가니 그들은 크발 강가에 거하는데 내가 그들이 앉아 있는 자리에 앉아 그들 가운데서 놀라서 칠 일을 지내니라. 칠 일의 끝에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말씀하시니라.

유프라데스 지류 그발 강가에 있습니다 에스겔이 그발 강가에 있었죠 거기 이스라엘 민족들이 포로 잡혀가서 거기만 있게 했어요 거기가 감옥입니다 그들에게는 그런데 굉장히 비옥한 땅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에스겔이 놀랐다 이렇게 앉아 있는데 놀랐다 그리고 애통하며 얼마나 놀랐는지 그들의 목골을 볼 때 얼마나 놀랐는지 털석 주저앉아서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욥이 그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 사단이 그를 쳐서 모든 재산도 다 날라 가고 10남매 다 죽어 버리고 또 자기는 욕창이 나서 문둥병자 같이 되어 가지고 기왓장으로 굶고 있으면서 아내는 네가 믿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하고 그리고 떠나 가 버렸습니다 얼마나 가려운지 피가 철철 나면서 굶고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위로하러 갔는데 할 말이 없었어요 할 말이 없으니까 그냥 7일 동안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7일이 나옵니다 7일 칠 일 끝에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 칠 일 끝이 됩니까 이스라엘이 칠 일 동안 그 환란을 통과 할 때 그들이 비참하게 되는 모습 그래서 욥이 마지막에 회개하는 것처럼 내가 재에 앉아 회개하나이다 한 것처럼

럼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회개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회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개하  
죠 그럴 때 회개하고 천년왕국에 들어 가는 것을 봅니다 이 칠일의 끝은 대 환란의 끝을 여기  
서 그림자로 보여 주죠 여호수아서에 보면 그 주의 길 앞에서 일곱 양각 나팔을 든 일곱 제사  
장이 행진하고 나팔을 불고 그러죠 그럴 때 하루에 한 번씩 돌았습니다 나팔을 불면서 아무  
소리 없이 돌았습니다 7일째 되었을 때 그들이 일곱 번 돌고 소리를 지르니까 여리고 성이 무  
너졌습니다 여리고 성이 세상 이죠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이 앞으로 환란 끝에 회개하면 이 세  
상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주님이오셔서 무너뜨립니다 여호수아보다도 크신 주님이 오셔서 무너  
뜨릴 때 그들이 여리고성이 무너진 그 땅으로 다 들어가서 이 땅에 제사장 민족이 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고 환란 끝에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다 통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절절히 다 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절절히 보지 않으면  
안됩니다 17절 보니까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집에게 파수꾼으로 세웠나니 내 입에 있는 말을 듣고 내게서 나  
오는 경고를 그들에게 주라.

여러분 이것은 첫째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준 거죠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이 오늘날 성령이 계시는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똑 같은 명령입니다 경고하  
라 파수꾼으로 경고하라 우리도 경고해야 됩니다 사도바울이 사도행전 20장 20절로 2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얼마나 복음전파가 중요한 건지 다시 말해서 복음 전파를 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정말 게으른 사람이죠 이 사람은 므나를 남기지 않고 수건으로 싸 뒀다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을 들은 그런 사람이요 달란트 비유에서는 땅에 묻어 둔 사람을  
흑암에 던져서 이를 갈고 있었어요 이걸 이스라엘 민족에게 대한 얘깁니다 율법하에 있는 사  
람들이예요 그러나 은혜 아래 있는 사람들은 지옥은 보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악하고 게으른  
종이기 때문에 전혀 상이 없습니다 면류관이 없습니다 다섯 므나나 열 므나 남긴 사람은 열  
고을 다섯 고을 다스리는 다시 말해서 면류관을 받고 주님과 함께 내려와서 통치하지만 그렇

재 앓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믿음이란게 하나님이 계신 것만 아는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찾는  
게 뭐죠 그 분의 말씀에 전심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상입니다 이 땅에서는 상 못  
받으면 다음에 받으면 되지만 중학교 때 못 받으면 고등학교 때 받으면 되지만 그러나 그 때  
가서는 한 번으로 끝이 나요 이 얼마나 제가 37살 때 주님 만났을 때 주님 제가 너무나 세월  
을 허송세월 했네요 어떡하면 좋겠습니까 가슴을 치니까 아니 아니야 절대 늦지 않았다 인생  
은 40부터다 걱정하지 말고 따라 오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까 정신이 없더라고요  
식구들이 굶어 죽든지 상관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아이구 하나님이 내 아버지니까 걱정 없다고  
여러분 세상에 회사 회장도 내가 믿고 그 분을 내가 죽도록 충성했는데요 그렇게 충성했어요  
가정을 돌보지 않고 매일 같이 휴가도 안가고 그렇게 하니까 나를 미국까지 보내 주셨는데 우  
리 하나님은 미국만 보내주십니까 천국을 보내주십니까 그 분을 내가 알 면은 뭘 걱정합니까  
세상에 재벌의 아들만 되도 아버지가 돈 한 푼 지갑에 없어도 걱정 안 하죠 필요하면 딱 이메  
일 치면 구좌로 들어 올 꺼 아닙니까 온라인으로 정말 하나님 아버지를 믿느냐 안 믿느냐 이  
게 중요한 겁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 했죠

너희에게 유익한 것은 무엇이나 숨겨 두지 않고 보여 주었으며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너희에게  
드러나게 가르쳤으니 유대인과 또한 헬라인에게도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  
도에 대한 믿음을 증거 하였느니라

사도바울이 뭘 증거 했다구요 집집에 다니면서 회개하라 하나님께 회개하라 예수 믿지 않은  
것을 회개하라 그리고 예수를 믿어라 주가 되신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를 믿어라

그 믿음을 증거 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거 하였느니라 이게 바로 우리의 복음을 전하는 핵심입니다 여러분 회개가 없으면 안 됩니  
다. 요즘에 회개 없이 그냥 믿는다는 사람이 있는데 회개가 없이는 진짜 회개하는 사람이 믿  
게 되어있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완전히 세상으로부터 돌이키는 거예요 세상에서 빠져 나오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섬기는 다른 것들로 완전히 빠져 나오는 거예요 이게 회개입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아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열심히 증거 했기 때문



에 사도행전20장 26절에

그러므로 보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거 하노니 모든 사람의 피로부터 내가 깨끗하니 모든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이야~, 그러니 사도바울이 얼마나 복음을 증거 한 겁니까 장가도 안 가 구요 성령을 받으니까 결혼 할 생각이 없어졌던 거예요 3장 18절 보면 말이죠 이런 말씀이 있 죠 에스겔서 3장 18절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할 때에 네가 그에게 경고도 주지 아니하고 그 악인에게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라고 경고하여 그의 생명을 구하라고 말하지도 아니하면 바로 그 악인은 그의 죄악 가운데서 죽을 것이나 나는 네 손에서 그의 피를 요구하리라.

생명을 구하라고 말하지도 아니 하면 바로 그 악인은 그 죄악 가운데서 죽을 것이나 나는 네 손에서 그의 피를 요구하리라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 소드 오브더 로드(Sword of the Lord), 주의 칼이라는 선교단체를 가진 분이 있어요 그 존 라이스(John Rice)란 사람이 있어요 옛날에도 보니까 빌 보드에 두 개를 만 들었더라구요 더 소드 오브어 로드 카밍 soon(The sword of the Lord coming soon), 주님의 칼 이 곧 온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가니까 그러므로 당신은 예수를 꼭 믿어야 된다 굉장히 오래 전에 했던 이 분도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이 분이 복음 전파를 소홀히 하는 사람들 어 떤 죄를 짓는가 여기에 대해서 여섯 가지를 얘기 했어요

제가 보니까 은혜롭더라구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중대한 계획에 대한 불 순종의 죄를 짓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 했어요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2장 49절에 보니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 했죠 이는 내가 스스로 말한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 할 것과 이를 것을 명하셨으니 나는 그 분의 계 명이 영생임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말 하는 것은 무엇이나 아버지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 을 그대로 이르는 것이라 아들이신 예수님도 아버지께서 이르신 대로 그대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 따라 그대로 말씀을 전해 주 면 되는 겁니다 우리 생각을 얘기 할 필요 없습니다 억지로 설명할 것 없습니다 두 번째로 복

음을 전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 죄를 짓는다고 그랬어요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3절 24절 참 붙잡히기 얼마 전이죠 이렇게 말씀했죠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말들을 지키리니 그러면 그를 내 아버지께서 지키며 또 우리도 그에게 와서 우리의 거처를 그와 함께 정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나의 말을 지키지 아니 하느니라.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 하면서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에게 능력을 받으리니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 까지 이르러 내게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니

그랬죠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가라 주님이 마지막 열 한 제자에게 말씀 하셨죠 또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부활 하신 후 제자를 만나 가지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서와 시편의 나에 관한 기록이 이루어져야 하리니 이는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죽은 자 가운데 셋째 날에 살아나야 하리니 그러므로 예루살렘으로 시작해서 모든 민족에게 회개와 죄 사함이 선포되어야 하리니 너희는 이 모든 일에 증인 이니라

그렇죠 회개와 죄 사함이 선포되어야 하리니 회개하고 예수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럴 때 죄 사함을 받는다 구원의 확신이 바로 죄 사함의 확신입니다

세 번째로 복음을 전파하지 않는 사람은 주님을 따르지 않는 죄를 짓는 것이다 주님이 그랬죠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나를 따라 오라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죠 사람을 낚아야 됩니다 물고기 낚는 것도 힘든데 사람을 낚아야 되요 그러나 사람을 낚는 것은 주님이 하십니다 성령과 능력이 나타나면 되요 성령이 하시니까 우린 몸만 드리면 되요 우리는 도구만 되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주님이 육신으로 안 계시니까 올라 가셨으니까 성령이 그 분의 이름으로 오셨기 때문에 성령께서 안에 거하시는 사람들은 입만 벌리면 성령이 말하게 하십니다 염려할 것 없습니다 준비할 것 없습니다

네 번째로 주님 안에 거하지 않는 죄를 짓는 것이다 주님이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5장 보면은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게셋마네 동산으로 키드론 골짜기로 걸어가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제 걸어가면서 기도하시고 붙잡히는 겁니다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말씀 했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들이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라.

구원 받았으니까 안에 거해야 됩니다 말씀 안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하지 않는 죄를 짓는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말라 버리는 거예요 영적으로 말라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져다 불에 태운 데요 말라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면 내가 산다고 그랬죠 내가 성령충만 하게 됩니다 여러분 생명력이 넘칩니다 여러분 심지어 암이 걸려 가지고 의사가 두 달 밖에 못 산다고 그러는데 그 분이 두 달 동안 내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복음 전하라고 그러니까 한국 마켓에 나와 가지고 매일 복음을 전했잖아요 간암 말기가 한 달이 지나도 안 죽고 두 달이 지나고 안 죽고 석 달이 지나도 안 죽고 일년이 지나도 안 죽고 아직 살아 있어요 매일 복음 전하고 있어요 차 타고 다니면서 말이죠. 세상 사람도 말이죠 암이 걸리면 태권도해 가지고 이깁니다 태권도로 이기는 암을 성령의 능력으로 못 이기겠습니까 물론 갈 때 되면 가야죠 주님이 부르시면 가여요 뭐가 중요하느냐 갈 때 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거죠 대개 보면 낮게 해 달라고 기도원 찾아 가서 안수 받죠 그러나 그 분은 그렇게 안 했어요 내가 그 동안에 뭘 해야 되겠습니까 문제는 하지 못 하는 일을 빨리 해야되죠 그렇죠 세상 사람도 암이 걸리면 하지 못 하는 일을 합니다 사람들하고 관계가 안 좋다면 다 풀어 버리구요 다 합니까 하물며 그리스도인이 주님이 하라는 명령을 안 하고 어떻게 병고쳐 달라고 그러겠습니까 어차피 가게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린 준비 해야 되는 거예요

다섯 번째로 복음을 전하지 않는 사람은 현명한 사람이 되겠다는 명령에 거역하는 죄를 짓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잠언에 하나님 말씀 보니까 11장 30절 보면 의로운 자의 열매는 생명의 나무니 흔들을 이겨 오는 자는 현명하니라 winning soul,

혼 믿음의 결국 혼들의 구원을 받는 것이라고 그랬죠 혼들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 혼들이 빠져 나갈 때 구원받아 하늘나라에 가는 것 아닙니까

의로운 자의 열매는 생명나무니 혼들을 이겨 오는 자, 즉 전도 하는 자는 현명한 자라 다시 말해서 전도 하지 않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다 이런 얘기죠 참 정확하게 얘기 잘 했어요

이 분이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영적인 살인죄를 짓는 것이다 에스겔서 3장 18절에 있는 것처럼 말이죠 내가 복음을 안 전해 가지고 그 사람이 지옥 가면 내가 아는 사람이에요 만나는 사람이에요 내가 복음을 안 전했어요 그 사람이 죽었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살인죄를 짓는 거예요 옛날 어떤 목사님 사모님이 기도를 하는데 어느 집에 가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 분이 암이 걸려있었어요 어느 집에 가라 그래서 내일 가죠 그랬데요 그 다음날 가니 들어 가셨어요. 제가 아침에 기도 하는데 주님이 어느 감리교 권사님이에요 지금은 장로가 되었지만 그 아버님이 장로님인데 그 장로님이 아팠어요 암이었어요 막 기도 하는데 저보고 가래요 그 얘기 듣자마자 기도 딱 끝내고요 뿔떡 일어나 전화 걸었어요 주님이 나 보고 아버님 만나라는데요 그러니까 오셔야죠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 날 오시기로 되어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분이 내가 간다니까 이 분이 믿음으로 오라한 거예요 가가지고 내가 전도했더니 구원도 못 받았어요 그래서 주님을 영접을 시켰어요 그리고 장로님 장례식에 부르는 찬송은 돌아가시고 부르는게 아닙니다 지금 나하고 같이 부릅시다 그러구 두 곡을 불렀어요 눈물을 흘리고 불렀어요 그리고 내가 떠난 다음에 열 두 시간도 안 되어 돌아 가셨어요. 우리 교회 나오는 허 집사 있죠 이 분한테 내가 계속 옛날에 이 분에게 씨디를 보내줬어요 교회에 계속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그 날 내가 감기가 걸려 가지고 열이 나고 있었어요. 한 여덟시쯤 되었나 그런데 성령께서 그 집이 가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몸이 열이 펄펄 나는데 아멘 그러구 갔는데 그렇게 안 믿든 사람이 그 집에 아홉시에 문을 두드리고 갔어요 그랬더니 이 분이 그 날 주님을 영접 했어요 그리고 교회 나오게 된 거예요 그 분이 교회 안 나왔으면 허 권사님 가정도 안 나왔어요 우리는 주님이 얘기 하시면 그냥 순종해야 됩니다. 그거 즉각 하지 않으면 안돼요 때는 늦어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즉각 즉각 순종하는 사람

을 씁니다 얘기해도 그냥 들은 척 만 척 한 사람은 안 써요 말씀 안 해요 그다음에 항상 영적으로 우리는 민감해서 기도할 때 주님앞에 그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새벽기도도 하라고 해서 한 거예요 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라면 하고 말라면 말고 자라면 자고 또 자라면 자야 되요 쉬라면 쉬어야 되요 일하라면 일해야 되요 쉬라는데 죽으라고 일하는 사람 있어요 그것도 안되요 그것도 교만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 몸을 아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항상 복음 전파 하는 일에 신경을 쓰다 보면 주님이 만나게 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시 한 번 우리에게 이 에스겔서를 통하여 이 에스겔처럼 저 반역한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동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다른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 사실을 다시 한 번 우리 마음에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